

[자료소개]

「東萊城 陷落의 날」에 대하여

민병욱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희곡 및 연극에 관한 가장 최근 연구는 「해방공간에서의 부산지역 연극운동」(『항도 부산·24』,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8, 131-158쪽)이다. 선행 연구에서 「東萊城 陷落의 날」에 대하여 다음과 서술하고 있다.

희망좌에 이어서 학생극 주도세력이 전문연극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1947년 문예신문사가 주관하는 문인극회가 결성된다. 문인극회는 제 1회 「민족의 태양」(염주용 작, 김수돈 연출)을, 제 2회 「동래성 함락의 날」(염주용 작, 김수돈 연출)을 전국 순회 공연한다.

이러한 문인극회의 결성에 이어서 전문연극운동체의 활동은 6.25 전쟁 이후에 가능해진다. 부산지역에서는, 전쟁 전에는 보도연맹문화실과 경상남도문화실이 공동 주관한 국민예술제에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는 육해공군정훈대의 연극공연, 극단 신탁의 연극공연이 이루어진다. 특히 임시수도 부산에서 극단 신탁의 활동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연극은 거의 사라진다. 부산연극이 다시 지역연극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는 것은 전쟁이후에 가능해진다.

「東萊城 陷落의 날」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들은 ‘문인극회가 제 2회 「동래성 함락의 날」(염주용 작, 김수돈 연출)을 전국 순회

공연한다.’는 기록뿐이다. 그 기록에서 『동래성 함락의 날』이 염주용이 창작한 희곡작품이라는 것만 제시되었을 뿐, 관련 문헌사항은 전혀 밝혀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 작품은 이순욱 박사가 염주용의 삶과 문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단서를 발견하여 필자에게 넘겨진 것이다. 이순욱 박사는 작가 염주용의 삶과 문학에 관해서 「광복기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文藝新聞)」(『석당논총·52』, 2012, 1-42쪽)에서 상론하고 있다. 다만 이 작품에 관한 문헌사항은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필경사본으로 그 첫 페이지에는 오른쪽부터 세로로 ‘廉周用 作’ ‘東萊城 陷落의 날’ ‘四幕 六場’으로 적혀 있고 맨 밑에는 가로로 ‘鶴山女中 出演 台本’으로 적혀 있다.(사진)

이 작품의 발굴을 통하여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희곡 및 연극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작가 염주용의 연극활동이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東萊城 陷落의 날』에 대하여 / 3

廉周用作
東萊城
陷落의 날
四幕八場

鶴山女中 演台本

東萊城陷落의날

全四幕六場

第一幕

辛卯年宣祖三十四年 西紀一五九一年

慶尚南道東萊府

申汝璈（宋象賢以廷旨）

宋鳳壽（單官）

大宋伯（御史）

遠同（宮奴）

鄭撓（釜山僉使）

金蟾（枝生）

金春(蟾)의 女婢

李良弼（宋家賢）

萬介（良女の婢）

平義習(村西島の子俊の賊將)

金利均（投化民）

舞台

舞臺는 東萊府公所
아름드리기동과
벽과추녀에
찰란한
단청불한
널고높은
공주이다

問 圃에古木이 둘러서고 嶺은돌아래로붙어
左邊에높은衙垣과 丹서은將軍像을그린

右便에는 貞鎬의 비를 세워 單官片大小鎬의 通하는 門이 있고 그

됨으로
기와
집
웅들이
蒼然히
바라보인다

嘉熙
東萊府使
宋徽賢
金山使使
鄭揆
羅官
京國寺
鄭吏
大泉伯密이着

扁하고 官坂 遇同이倂立한 入가은터 차吳緊張되 畺圃氣를 이루고있다

授 釜山僉使鄭樸이 重大한 趙惠을 考課은 祿位이다.
 大馬 도주 (大馬島主)의 吏를 聘의치 (平義親)가 우리나라에와서 배웠는데
 소리를 告知 할 法로함을 동시할수 없었이요 本營이 馬蹄 소성 (小城) 부산
 (釜山)을 防은 소관 (小官)이요나 당장 그들의 功을 使하나라의 위신을 세
 을 생각이 없지않소 그러나 부사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이렇
 게 奏중히와나이다
 宋象賢 宋象賢의지가 무수대듯있는 소리를하엿소
 鄭樸 鄭樸의지가 명(明)나라를 聘하인대 우리나라가 일본과 힘을합쳐하
 일본이상차 명(明)나라를 칠터인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힘을합쳐하
 이며 만일 그렇지못한다면 길이라도 빌려야할터인데 그것조차없된다면
 부득불 우리나라와 명나라를 한꺼번에 칠수밖에 없으리라 하엿을나이다
 宋象賢 (奏)를조고 깊은생각이나 참견다
 宋鳳壽 (軍謀)다운豪氣를 보이며 그자간제왔으며 지금이곳에 머물고있사이가
 鄭樸 어제 일본에서 건너오드길도 나를찾아왔으며 하즉부신에 머물고있을것이요
 宋鳳壽 宋鳳壽가 제가짓 섬나라놈들이 감히 명나라를 칠것이더도 무연하
 계도 우리나라에갈을 빌리라나 (별일이리나서 宋府使를보고) 부사님저가
 가서 당장 그들의 목을 버히리다
 宋象賢 (衷默)
 大京伯 (宋軍營을보고) 참어시요 목을대할일이면 부산참사께서 아련히버렸전소 빌
 시 그들의 故어진지 오뵈었이요
 宋鳳壽 (분함을 두르고 앉는다)
 宋象賢 그러시 참사께서는 무어라고 대답하엿소
 鄭樸 천부단 판부장한소리와하였읍니다 만일 일본군사가 범境을하다가는 유치에오르기
 도전에 모도리 바다किन이 될것을알어하 친디고하였읍니다
 宋象賢 허허 그참 홀로한 대담을하엿소 마땅히그리리다 마나히 그리리다
 (鄭樸의 손을잡고하오)
 鄭樸 부사도그렇게생각하오
 宋象賢 어찌생각만하겠소나라를위하해구경이아질지 않을것이 청사나내가다른배였을것이요
 鄭樸 (기뻐하며) 그러리이다 그러나 소산의水의 淸를 淸로만들고나이다

~3~

東家賢

를 얻어 책임을 다 할까 하나이다

그리나 우리들의 용기가 얼마나 나라의 대세를 바로 잡을 수 있을는지? (우울해진다)

지나드월 우리나라 통신사(通信使) 황윤길(黃允吉, 金諡)은 두분의 일본으로

간비가서 통신수관(通信主官)을 만나보고 그 나라의 정상을 시찰하고 돌아왔으나

황윤길은 일본이 싸움 준비를 하고 있다 하였고 김성일은 그런 기미가 없었음을 본 아

니라 통신수관은 화를 지었는지 인간이라 한 뒤 명사라와 우리나라를 치지 못할 것이라 하여

두분의 보고가 각각 달라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였으니 이를 볼라서 일본이 대군을

몰아치들 어온다며 우리는 두엇으로 막아낼 것이요

파견하려 하오 임박은 군대군대 허두려진 그 때로 있고 병기(兵器)는 녹이 피어 쓸 것이 없

고 군사는 혼란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야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요

이요 김성일은 동인(東人)이라 남의 나라의 재정살피고 도란은 중대한 보고까지도

서로 반대가 된 것이요 이러고야 하찌 국가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오라가 장사(將士)

는 비참하여 싸우기보다 불기를 좋아하

太京伯 (太京伯을 못맞당히 바라보며) 장사만의 비참한 것이 아니요 문약정치(文弱政治)

가 양정을 비가낸 것이요 국체의 군비를 충실하게 하여 외적을 막을 상책을 하지 않

고 의국의 힘을 국체로 불러들여 자당자파의 세력이나 보강할 여고 애들 부들

쓰는 정부의 고관들이 다 같이 비참한 것이요

東家賢 (卿吏와 문람을 차례로 보며) 한부도 할 말들이 아니요 나라의 흥망에는 비록 필부(匹夫)

라 할지라도 책임이 있는 것이요 나라의 은법이 위태로운 때일수록 우리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운 따들이요

鄭 堧

東家賢 (말씀이요)

太京伯 (太京伯을 못맞당히 바라보며) 장사만의 비참한 것이 아니요 문약정치(文弱政治)

가 양정을 비가낸 것이요 국체의 군비를 충실하게 하여 외적을 막을 상책을 하지 않

고 의국의 힘을 국체로 불러들여 자당자파의 세력이나 보강할 여고 애들 부들

쓰는 정부의 고관들이 다 같이 비참한 것이요

東家賢 (말씀이요)

鄭 掾 갈았습니 다 소관은 아질로 도라가려호(이러나니 본사제 함치하다)
泉象賢 도처럼 오신걸 이니 찬원히시어가상이 여려하오?
鄭 掾 오늘은 평의치가 또 부사를 찾아올는지 모르오니 저가 빨리 하자리를

(나) 또 아래까지 내려와 하직한다. 천사의 떠나가는 발(땀)발 굽소리
갈소 (이려나서 파아문 뻘으로 나간다)

(다) 또 아래까지 내려와 하직한다. 천사의 떠나가는 발(땀)발 굽소리
보란! 하느니 차츰 멀어진

來賢(을아래선 그데로) 여리는 뺨리근기를 검색(檢索)하고 성벽의 문허진 곳을 조사해오도록하시요

京應壽 萬壽軒 萬壽이 오나
 근키창에 들어있는 것은 삼결(槍劍)이라
 궁치(弓矢)를 물은 하교

東家 寶
 太 宗 伯
 성벽도 오락동만 수축한일이엄어 등문과 북문사이에 있는 인성문(人生門) 근처가
 가장 맑고 문치졌고 그 밖에도 손대야할곳이 많기이다

宋象賢(호 자말차림) 내가 도입한 거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 자아한 번도 성벽을 둘러보지 못하였으니 실로 미안하기 짝이 없소. 오늘날은 이길로니와 함께 성벽을 돌로보기로

합시다
(二) 同大衙門으로 나 갈 여할 때 역시 大衙門으로 道袍입고 冠笠從者 申汝槽가 들어온다

申
(京府使에게 질하고) 사도께야 되고
대마도 주의 아들을 평의지장군이
사도를 뵈오려

申 네에 평의지 상군이 라 하오
 陳鳳壽 (허리에 큰 칼자루에 손)

永象賢(單官을보고)경거만동(輕孝忠動)으로 국가의 대사를 그러치사는
 ㅁ을바질나날이 카필노(카미아나라도)있을것이요
 ㅁ의지의

東國壽(황송壽) - 갈자루에서 소를 때고 府使의 뒤로 물러간다.
 宋家賢(鄉吏大宋伯을 보고) 술상과 가무(歌舞)를 즐기하교. 오늘날은 탐의지의 폭을 버린 것이

申 同 네에이(右便官衙로들어간다
 宋 象翼 (汝槽에게) 평의지장근을 이리로익서라
 (질하교 九衛門으로場)

平

(門 밖에서 말마루는 소
대도 그러나 어찌를
바른손은 땅에 앉을 만치 공손히 일운한다)
저는 싹붙국 대파도 주의아를 평의자를 사다 한번에 정부
의 명령을 받고 소신나랏 동래

求象賢
부사께 문안들이러 왔읍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이리로 몰라오시요

(一同着席 平義智云 釜山僉使가 있었다는 자리에 棠內된다)

未幾賢
먼길에
일마나
고생을
하랴소?

平 平 平
 衆賢 (평의지의 말에는 대남치알고 먼저질르서) 그런데 귀국(貴國)에서 강차 명나라를 차
 감사하오 부사계서는 국사에 열마나 파비심니까(교활한우승을 의우고 府使를치다보다

平
(得意滿滿하게) 그렇습니다
명나라를 치지않고
조선나라가 평안할 수 없고
우리일은

(이때 급수가 술상을 들고 왔다 껌갈채된 음식이다 宥府使 술병을 들어 평의지에게

忠家買
자술을 받으시요 그런 말쑥은
월래 자를 들고 하심이 더
훌륭할 것 아요

平 (차)을 들고 宋府使의 술자들을 기다려 함께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성(城)에 들어와서 위고 갈수는 없겠음 니까? 보자. 남의 인적은 우리 일본 나라에

날라면
부사께서는 차마 앉으실 수가
없을 줄 압니다 (표활하고 간사한 얼굴이다)

것은 무엇이요? 우리나라를 지새가는 동안에 명나라 군사가 또 마조척배를 쫓아왔기 때문

그리면 부사께서도 어찌하시겠소?

來發賣 그런것은 나같은 소관이 알배아나오 우리나라정부에서 마땅한한지사가 있을것이요
정부에서 안일정을 벌리지말라하면 부사께서는 우리일본 군사를 상대운 싸울것임니까
그것은 그럴수밖에 없을것이요
來發賣 (일금이 북이지며 來府使를 노략부패) 부사는 우리 일본군사가 일파나 강한지 아직
否

宋義員 (同) 宋義員 주교 받은 술잔을 받추고 宋義習을 바라본다 畢官 宋義習은 작구 칼자루에 손이 갈여진 것을 (스스로 참는다) 티 4 4 자 (술을 드시오 일변은 사가 강할 줄은 나도 아오 그러나 오늘 잠은 파나는 서로

를 대표한 주인과 손님 허허허 가 술을 드시요 불필할것은 조금도 없소(한손은
평의지의 등을치며한손으로술잔을친한다
하하하 과연 부사님의말씀은 훌륭하오 옳은말씀이요

(이때 校生 金蟻 이 石硯에서 登場되다라 金春이 가 거문고(琴)를 들고 登場)
 (金蟻은 同에게 실패하고 술을 부는 다 金春이도 거문고를 한탄에 놓고 蟻를 따라 술을 부는 다)
 (술잔을 평의지에게로 자주 간다 羅賓도 卿使도 평의지에게 술을 권한다 평의지는

平 (蟾의 손을 잡고) 송부사남은 참홀를워 아른아른히 보시니
金 蟾 평의 지의 상투를 만지며) 우리부사님 홀로루신 줄 아라 보시니
강 근녕도 패 홀로루

求象賢 (평의지의 푸른색을 엿보코
(軍官 宋賜壽의 웃음소리에 평의지의 기색이 자못 조치못하다

平
작은리가무를 시작함이다 장군께서는 조선가무를 조의할일이요
(마지못해 위신을 회복하고) (슬작을는다) (金蟾의 기은고사작되며 蒲蔭田 龜律과

平 太 平 蟻

(金春의가 춤을 춘다 場內는 더욱 환을한 境에 들어간다 이윽고 소리와 춤이 끝
나고 또한 술을 한잔씩 마신 뒤에) (평의지설골이 벌게가지고 蟻의 허리를 쳐안고 입을 마
추서세다) 감간차 못하게 (뺨손이를치고 빠져나간다)

平 太 平 蟻

(무아한 蟻를로 기색이 좋지못하다)
여러분 이번에는 재가 우리 일본 사무라이의 검술(劍術)을 하여드리겠습니다
그중은 말씀이요 (평의지 어개를 흔들며 앞으로 나와 춤을 춘다 시퍼른 日本刀
를 빼어들고 휘휘 두루기도하고 공중을 돌고 소구기도하고 푸죽푸죽 시퍼
하고 목을 딱치는 시공도 하고 암 암 하고 기암도 넘어가며 빼갈 들어간다)
(劍術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 일본 검술이 이러하오 명나라 군사가 조선군사가
아무리 물여와도 못할것이지요 하하 (제자리에 도라가 앉는다)

宋鳳壽

(그를 벗적내고 앞으로 나서며)
이러이니 패왕가지고 가시오
(向注視裡에 單目 宋鳳壽의 槍術이 시작되었다 敵將가 겨여온 鎗을 들
고 패왕의 리듬 공중으로 내들으며 鎗을 받아내는 모양칼을 받아치는 모양
할 공중에 소구다가 앞으로 내대는 모양 평의지의 劍術만 못하지 않은 狀
觀이다)

宋鳳壽

(鎗術을 마치고) 조선군사로서 창검을 쓰는 법을 과연 못함과 없으니 이마라면
일본군사가 수십만이라도 물리칠수 있을 것이요 (하고 평의지를 바라본다)

平 太 平 蟻

(마조노려보다가) 이놈 녀하고
(좌고 칼을 빼들고 宋鳳壽와 앞으로 닥아선다)
(鎗을 내던지고 마조칼을 빼들고) 오나 이놈아 칼되었다 남의나라에 와서 버릇
없는 소리를 함부리하는 네놈의 목을 파헤치듯하고 그대로 보낼가 염려하는
라이다)

宋鳳壽

(平將士는 칼을 들어서로 마조하고 있다 이때 宋府使가 앞으로 나와 두강
사의 사이에 들어선다)
(먼저 單目 宋鳳壽를 보고) 칼을 끼우시오 원로에 우리나라를 찾아오신 귀
환 손님에게 이게 무슨 무례한 것이요?

宋鳳壽 完송하오이다. (친하고 잘을 볼김에 보는다.)
宋象賢 (평의지에게로 도라서며)
장근갈을 차두시오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나라 군판의 몸을 차지 아
니 하느니라 강차이 송상헌의 목을 드릴 날도 있을 것이요 일국의 장사로
서 아무순 성급한 것이라 말지요?
(宋府使의) 소치림 무거은 말에 평의지 말없이 칼을 펴고 찬손이 땅에
달도록 허리를 구른다.

暗

第二場 그날 밤

같은 舞臺

舞臺가 밝아져서 고요한 달밤 푸른 달빛이 公府와 넓은 돌과 古木에 가득히 비치고 있었다. 구름이 지나가는지 있었다. 금식 달빛이 흐렸다. 개였다. 한다. 무대는 텅 비었다. 면에서 巡邏官에 막이 소리 들려온다. 빈 舞臺에 右便에서 平義智와 毛判均이 登場. 平義智는 조이를 받아 들었다. 毛判均은 깃술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젊은 사나이다.

平 毛 判 均 아 아 패다리가 앞으네 (公府門에 걸터앉아 다리를 만진다) 자네는 고단하지 않는가? (선 그머로) 저는 편찮아요.

毛 判 均 (조이를 펴보며) 이만 하면 조사는 잘 되었지 (조이를 디려다 보고 봉숭으로 그린것은 달빛에 비치보며) 아! 인생문(人生門) 쪽으로 치들어 오는것이 가장 수월할것입니다. 그곳도 수축을 하기 전이라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많이 문허진것이 빨리 수축되나. 일본군사가 언제쯤 오게 되나요.

平 毛 判 均 그것은 나도 잘 모르지. 그리나 그리 오래 잠겼은 안해야 (하마 이려나서 품속에서 봉숭도 꺼내든것을 꺼내며) 노은 지위를 줄것이다. 알겠는가. 책임을 다한 때에는 노은 지위를 줄것이다. 알겠는가.

平 毛 判 均 내일 아침 내가 떠날 때에는 너를 만나지 못할것이다. 몸을 소중히 하여 책임을 다하기 바라네. 책임이 무엇인지. 필요이 명심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平 毛 判 均 무엇인가. 첫째 송부사의 애첩(愛妾) 양녀(養女)를 매수(買収)하여 송부사(宋府使)를 설득할것 둘째 그래서 일본군사가 와도 싸우지 않고 길을 빌려도록 할것. 그뿐인가.

[illegible]